東大時報

發行人 白佑
編輯兼印刷人 李鳳崇
發行所 東大時報社 電話 ② 1685.1686.1687 3611.3612
東國大學校內 서울市中區筆洞3街26番地
(週刊) 一部定價 百五十圓 月賦購讀料 貳百圓

吾語汝法 愛箭爲射 宜以自勗 受如來言 (法句經)

우리 文學發展에 寄與할 「東國文學會」結成

八日構內食堂서 結成式學行

會則通過및 會誌發刊等決議

「東國文壇의 傳統樹立과 韓國文化發展에 期與함을 目的으로 지난八日 午後三時半 本校 構內食堂에서 國文學會 結成式은 多數招待會員(先輩)과 會員(在學生)이 參集된가운데 盛大히 擧行되었다

▲李東林(招待會員) ▲李內曦(招待會員) ▲崔仁黃命(招待會員) ▲崔載福(招待會員) ▲吳學榮(會員) ▲金秉顯(會員)

◇常任幹事

▲崔載福(招待會員) ▲金秉顯(會員) ▲李內曦(招待會員) ▲崔仁黃命(招待會員) ▲吳學榮(會員)

◇代表會員

▲李東林(招待會員) ▲崔載福(招待會員) ▲金秉顯(會員)

◇常任幹事

▲崔載福(招待會員) ▲金秉顯

보다 나은 學園氣를 爲하여

李 東林

現在 當面하고 있는 學校當局도 關心事가 아니랴 저만치에 學會運營에 있어 보다 날수 없다。 過去 數年間의 學會運營狀態를 엿볼진대 해 더 効律的인 自治活動의 促進을目的으로 編輯部에서 이같은課題를 마다 各樣各色을 나타내 競爭이라기 보다도 오 던지 준것 같다 그러나 내고 있는것 같다。 이에 對하여 기서 學會 自治活動의 나로서는 이에 對하여 現況과 是非點에 對하 平素에 攝想한일도 別로없거니와 이같은 課題에 보려 다음 몇가지를 들 目을 集中케한다 게다 이 있을것인가 우리는 團에 特異한 提言이나 어보려 한다。 가 立候補者의 亂立相 生滅지 않을수 없다이이 待할만한 人物을 選出 生만을爲한學術硏究의運 動보다 實質主義로 라서 恒常 그 바린된 硏究的態度의 結果를 摘으로 敎伐한 青年期의 自由 敎育을 劃期한다는가 落 友를 많이 私交하는學 生은 社會的인眼識이그 만큼 넓어질수 있는것 이다。 識見이 安 定되어야 生活目標와 後 援을 들으려가는데 그 外의 目的이 있다면 卒 己的인 行動、無制限의 個人의 單獨行動을 主 張하는 것 以上 學生들의 自發的인 生活訓練을期 待할수밖에없다。 學校生活의 學生들은 學校當局과 協同하여 現金出納嚴格을 具備해야한다 學 年齡的 成長과 附隨해 서 誇大的 自己評價에 依 하여 自治活動의 明朗化 反・健全化에 依하여 學 生들로 하여금 恒常 善 良한 學究態度를 가지도록 하며 나아가서 基礎를마 小部分의 團體를 獨 得할수있도록 施設面에 依 存해야할것이며 一方 律的인面에서 現在 各 自治活動에 會員들의 期 待에 圓滿한 學會運營 運營가 않인 만큼 보 을하고 아울러 學術硏 究學生은 그 누구나제 專心케 됨으로서 各己 學術硏究에 勢興 하고 그런데 이제까지의 學 會運營을 보면 不美스 코 學生들의 學究的硏 究에 있어 自治活動의 立候補者登錄을 畢 竟 學生들에게 選出하게 하 는바 느끼는바를 率直 會를 도맡아 運營할 有 히 指摘하고 아울러 앞 能한 人材의 選出者로 으로의自律的인自治活動 서、그는 學生 全體의 에있어 健全한 指向을 認識를 받들어서 學會 바라는 意味에서 私見 運營의 萬全과 周備한 을 엮어 보려한다 自治活動을 爲하여 誠 學會의 本旨는 學生 心껏 奉仕하는 職責이 (會員) 相互間의 親睦 라고도 할것이다。 部의 學生으로서 마땅 라서 學術硏究에있다 따 그런데 이제까지의 學 會 學會運營이란 決 會 總會를

詩의 內容되는것들

徐廷柱

詩의 內容이라는 것은 即 마음(精神)의 內容이다。그러나 마음은 무엇이나 詩가 될수 있는것은또 아니니 眞·善·美한 마음이라야 비로소 詩의 精神이 될수 있다。이眞·善·美의 標準은 聖人의 있는것이니 時代의 推移에 따라서는 變할수도 있고, 志向할수도 있다。詩精神이 그러나 큰 詩人은 역시 時代의 聖人들과 마찬가지로 時代의 推移에 따라 變하지 않는다。큰 詩精神을 體現하는 것이 이것을 바라는마음의 各部門을 包含하고 또 綜合해 左右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詩精神은 眞·善·美 하기 때문이다。

詩의 內容을 大別해보면 1、主情的인 것 2、主知的인 것 3、主意的인 것 —의 세가지로 나눌수 있다

그런데 그중 主情的인 內容이란 感情的內容을 그 詩精神의 主知的인 內容이란 知性的인 것을 主로 한다는 뜻이요 主意的이란 意志的인 것을 主로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또 이 主情的인 것을 다시 區分해 본다면

ㄱ、感覺을 主로 한것

ㄴ、情緒를 主로 한것

ㄷ、憧憬을 主로 한것

—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수가 있고 또 主知的인것 即 知性을 主로 한것을 區分해 본다면

ㄱ、觀智를 主로 한것

ㄴ、知慧를 主로한것

ㄷ、戲智를 主로한것

—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수있다。

그러면 以下에서 이러한 分類아래 詩의內容 하는것의 各相을살펴보려한다

(1) 主情詩

이것은 위의 項目分類에서도 簡單히 說明한바와 같이 感覺內容 또는 情緒內容 또는 情操內容을 主로하는 詩로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感性이 빚어내는 內容을 하는 詩의主內容으로 詩의 人類가 여지껏 表現해온 詩中 第一많은 分量을 차지하는 것이다。特히 十八、十九世紀의 西歐를 根源으로 하는 浪漫主義의 詩內容은 거의 全部가 이 主情的인 것이었다。

(一) 感覺의 詩

感性이 빚어내는 感覺은 거기에 一貫되는 精神이 있어서 一種의 統一을 이룬다。이것은 마치 人體의 五官이 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의 感覺이 그 人格의 一部分이 되는 것과 같이 感覺은 人格의 一部分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感覺은 人格의 一部分이 되는 것이니 人格이 그 時代의 產物이라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이것은 康有爲가 黎元洪에게 보낸 『復孔案書』에서 말한바와 같이 『人格은 時代의 產物이다』라는 것

現代文化의 危險性

李昌大

우리들의 文化는지금 어떤위험속에있다 우리들은 그것을 現代文化의 危機라고 흔히불리왔지만 文化가 부닥친 위험이 어디서 부터왜 생겨졌는가에 對하여는 별로 관심을 갖고있지 않았다 그저 전쟁을 치른후의 현상이라든가 전환기의 현시적인 현상이라고 樂觀的인 견해로 文化의 위기를 생각하여왔다 그러므로 文化의 위기는 어느 시기에가서 극복되어질것이라고 막연히 믿고있었다. 허나 文化의 위기는 극복되기는커녕 現代文化는 기실어떤 위험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나는 여기서 그 文化의 위험을 압시하여 보려한다.

우리는 여러곳에서 文化의 위기를 이야기들 한다. 도대체 우리들의 文化가 위험한 상태속에 있다는것은 어떠한 뜻에서이며 또 그러한 文化의 위험은 어디서부터 생겨진 것인가? 전쟁에서 그것이 생겼다며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었던 나라에서는 文化의 위험을 겪지않을 것이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었던 나라에서도 文化의 동요가 있었어나고 있는것은 왜일까?

그것은 전쟁에 그까닭이 있는것이 아니라 다른곳에 즉 文化 그 자체속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 일것이다

世界史의 개념을 부경하고 인류의 文化를 연속적인 生成발전이라고 말하여 오던것같은 재래의 의미로서의 世界史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스펭그라는 『여러 文化는 식물이다는 식물이라고 文化를 식물에 비유한다 그는 식물과의 운명과 인간의 운명과의 유사함을 이야기한다 그에 의하면는 『少年期上向期 開花期 衰滅期라는 말이 주관적인 가치 평가의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유기적 상태의 객관적 기호로서』 여러 文化에도 적용할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 여러 文化의 『표준적인』 생명의 년한을 천년이라고 말한다. 文化는 그기한 이전에 의부에서의 災厄에 닦이 있는것이 아니라 다른곳에 즉 文化 그 자체속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 일것이다

그것은 文化의 개념을 부연속적인 生成발전이라고 말하여 오던것같은 文化의 위험은 어디서